

## 좌주관동맥질환의 외과적 치료

전남대학교 흉부외과학교실  
안병희 · 나국주 · 김상형

좌주관동맥협착의 환자는 외과적 치료에 의한 증상의 호전 및 생명연장의 효과가 내과적 치료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50% 이상의 좌주관동맥협착은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술사망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자들은 1992년 10월부터 1995년 8월 사이에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았던 63명의 환자 중 좌주관동맥에 협착이 있었던 21례의 임상소견을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21례 중 12례가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25세에서 67세까지로 평균  $49.33 \pm 12.54$ 세 이었다. 위험인자는 일인당 1.94개 있었는데 흡연이 9례로 가장 많았고 4례에서는 위험인자가 없었다. 수술적응증으로는 불안정 협심증 14례 (66.7%), 안정 협심증 4례 (19.0%), 급성 심근경색 3례 (14.3%), Takayasu's 대동맥염 2례, PTCA 실패 1례이었다. 병변은 단순(isolated) 좌주관동맥협착이 11례로 (52.4%)로 가장 많았고 단일, 이중, 삼중 관혈관 협착과 동반된 레가 4례 (19.0%), 3례 (14.2%), 3례 (14.2%) 이었다. 수술수기로는 좌주관동맥 개구부 협착만 있었던 5례에서는 자가심낭을 이용한 개구부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16례에서는 내유동맥 및 복제정맥을 사용한 관동맥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좌주관동맥 개구부 성형술을 시행하였던 레는 평균 연령이  $32.20 \pm 6.40$ 세로 관동맥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하였던 군의  $55.67 \pm 7.91$ 에 비하여 유의하게 연령이 낮았고 관동맥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하였던 군에서는 전례에서 내유동맥을 LAD에 문합하였으며 1례에서는 D1에 연속 문합하였다. 복제동맥을 이용한 문합은 33개 (평균문합수  $3.13 \pm 0.93$ )를 시행하였다.

술후 1례 (4.76%)가 출혈로 수술 2일째에 사망하였는데 좌주관동맥협착과 삼중혈관 협착이 동반 레로 4곳에 문합을 시행하였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출혈에 의한 재수술 2례, 창상감염 2례, 늑막삼출 2례, 부정맥 1례가 있었다. 술후 관동맥조영술은 8례에서 시행하였는데 좌주관동맥개구부 성형술을 시행하였던 5례에서는 현저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저자들의 증례는 많지는 않으나 단순 또는 복합 좌주관동맥협착의 외과적 치료가 다른부위의 관동맥협착에 의한 외과적 치료에 비해 수술사망율이 높지 않았다. 좌주관동맥개구부 협착은 젊은 나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내과적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조기에 발견하여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자가 심낭을 이용한 개구부성형술은 미용, 재수술의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인 수술수기로 권장할 만한 수기로 생각된다.